

일본사회의 ‘미투(#MeToo)’와 민주주의 : 구조화된 폭력에 눈감은 언론의 ‘젠더평등’ 담론

이 미 숙

릿쿄대학교 글로벌리버럴아츠프로그램운영센터 조교수

일본사회의 ‘미투(#MeToo)’와 민주주의 : 구조화된 폭력에 눈감은 언론의 ‘젠더평등’ 담론

이 미 숙

릿쿄대학교 글로벌리버럴아츠프로그램운영센터 조교수

01

일본의 ‘미투’운동의 전개 – 미투(#MeToo)에서 쿠투(#KuToo), 그리고 ‘플라워데모’로

2017년 5월 말, 이후 일본 사회에서의 ‘미투(#MeToo)’의 상징적 인물로 알려지게 된 이토 시오리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토 시오리는 2015년 4월 일본 방송국 TBS의 워싱턴 지국장이었던 방송 기자 야마구치 히로유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야마구치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체포 당일 긴급 중지되는 등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있었다. 당시 수상이었던 아베 신조의 평전을 집필하는 등 야마구치와 수상의 긴밀한 관계가 의혹을 받기도 했다. 또한 당시 체포영장을 중지시킨 도쿄도 경시청의 형사부장이었던 나카무라 이타루는 본인의 판단이었음을 인정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참고로 2021년 나카무라는 일본 경찰청장관으로 영전했다) 이렇듯 난항이 있었던 수사는 최종적으로 검찰 당국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된다. 2017년 5월 말의 기자회견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심사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이었다. 가족들에 대한 피해를 우려해 이토라는 성은 빼고 ‘시오리’라는 이름과 얼굴을 밝힌 기자회견이었다. 그러나 당시 신문과 방송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단신뉴스로 처리한 기사에서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본인을 공개한 이례적인 일로 다뤘을 뿐이었다. 전체적으로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의 반응은 조용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이토 시오리가 자신의 경험을 담은 ‘블랙박스’라는 책을 성까지 밝힌 실명으로 출판하고, 외국인특파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 당시는 미국에서의 ‘미투’가 일본에도 전해진 상황이었다.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의 수년에 걸친 성범죄가 뉴욕타임즈의 탐사보도를 통해 밝혀진 이후, 미국에서는 성범죄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MeToo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함으로써 성범죄 및 성차별 철폐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운동이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미투운동은 일본에도 전해졌으며 이토 시오리의 공개적인 성폭력 고발은 일본 미투운동의 시초로 여겨졌다. 당시, 이토 시오리는 검찰심사회마저 불기소결정을 지지하자, 야마구치에 대한 민사소송을 결정하고,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연 것이었다. 이후, 인터넷과 SNS에서는 본인과 가족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기도 하고, 빗우익으로부터 ‘반일’(일본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는 등)이라는 헐박과 중상 비방이 이어졌다.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거주지를 영국 런던으로 옮기기도 한 이토 시오리는 2년 동안의 법정소송을 거쳐 2019년 12월 말 승소하게 된다.

2017년 12월, 일본 작가 및 유명 블로거인 ‘하아츄’의 미투도 이뤄지며 일본의 소셜미디어에서는 #MeToo를 포함한 게시물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일본 국내의 트윗, 리트윗을 분석하면, 12월 17일, 18일 이틀간 미투 게시물 수가 그 전 2개월간(2017년 10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의 게시물 수를 훨씬 뛰어넘는다(아사히신문, 2017년 12월 21일, ‘일본에서도 #MeToo 하아츄씨 피해 호소 후 급증’). 그러나 소셜미디어에서의 관심은 한국과 같은 대중적인 수준에서의 미투운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이토뿐만 아니라 하아츄에 대한 중상 비방도 끊이지 않는 등 ‘목소리를 낸’ 여성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던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목소리를 낸’ 여성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성범죄피해자들을 고립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성 기자들 사이에도 존재했다. 이토 시오리가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였던 것도 한 요인이거나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미투 관련 기사를 작성하고자 해도 ‘피해자 말이 사실이나’, ‘증거가 있냐’는 식의 데스크 판단에 의해 기사화가 어려웠기 때문이다(버즈피드, 2018년 5월 21일, ‘보도현장에서 #MeToo 조롱하는 상사, 조사에서 보여지는 ‘성희롱 재생산’의 현실’). 이에 여성 언론인들이 중심이 된 비공식적 연대조직 ‘장미가시’(2001년 결성)의 지원 속에 이토 시오리 등은 2018년 3월 성폭력 근절을 내건 #WeToo를 개시한다. 또한 2018년 4월의 재무성 사무차관의 여성기자 성희롱사건이 불거지며, 여성 기자들의 공식 조직인 ‘미디어에서 일하는 여성 네트워크(WiMn: Women in Media Network Japan, 2018년 5월)’가 결성되기도 했다. 이는 언론 현장에서의 성폭력 근절과 성차별을 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조직이다.

2019년에는 미투운동을 이어가는 시민사회의 움직임으로 쿠투(#KuToo)운동과 플라워데모가 등장한다. 이시카와 유미에 의해 제창된 #KuToo는 구두의 일본 발음 Kutsu(靴)와 고통을 뜻하는 Kutsū(苦痛)의 발음이 비슷하다는 데 착안하여 여성들에게 힐이 있는 구두를 신을 것을 강요하는 직장 내 복장 규정이나 문화를 #MeToo와 같이 고발한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호응하여 인터넷에서는 #KuToo 온라인서명이 이어졌고 60만명을 넘는 서명은 국회에도 제출되어 정치적 의제로도 등장한다. 이에 JAL, ANA 등 항공사 및 일부 회사에서는 여성 직원에 대한 구두 규정을 폐지 및 재검토하는 등의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아사히신문, 2020년 5월 8일, ‘ANA 힐 규정 재검토 - JAL에 이어 #KuToo’). 한편, 2019년 3월에서 4월에 걸쳐 친부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 4개의 사건이 잇따라 ‘무죄’로 판결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일본군 성노예 문제와 관련해 한국 여성단체 및 재일여성운동가 등과 연대하고 있던 키타하라 미노리가 참가자 개개인 한 송이 꽃을 들고서 성범죄 피해 경험을 오프라인 공간에서 공유하는 ‘플라워데모’를 시작했다(<https://www.flowerdemo.org/>). ‘#MeToo #WithYou’를 내건 플라워데모는 도쿄뿐만 아니라 일본 각지로 파급되어, 각 지역의 자발적 시민들이 지역 플라워데모를 열고 있다.

이렇듯 여성 기자들의 의식화 및 조직화, 그리고 시민사회에서의 포스트(post) 미투운동은 이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움직임이 일본의 주류 언론 및 정치 시스템에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파동을 낳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이는 ‘미투’를 젠더화된 권력관계, 즉, 여성을 둘러싼 성차별적 사회구조에서 기인한 문제라기보다 여전히 ‘사실’을 다투는 개인적인 사안으로 바라보는 언론과 주류사회의 시점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02

일본 주류 언론과 '미투' - 구조적 폭력의 '개인화'

한국에서 서지현 검사의 '미투'를 둘러싸고 주요 언론이 기민하게 반응한 것과는 다르게, 일본의 주요 언론에서는 2017년 당시 이토 시오리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에서 가장 구독률이 높은 요미우리신문에서는 2017년 단 두 건의 이토 시오리 관련 기사가 게재됐다. 그것도 저서로 출판한 '블랙박스'에 관한 기사다. 2018년 이후, 이토 시오리의 민사소송 및 성폭력 근절 관련 이벤트 활동에 대한 기사가 조금씩 늘어나긴 했지만, 종합적으로 일본의 주요언론은 '미투'에 냉담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는 일본의 '객관보도' 원칙 내의 '구조적 편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나온 이상 이토 시오리의 '주장'은 기사가 되기 힘들다는 것이 주류 방송, 신문 기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¹⁾.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액션'을 취하고 판결 결과가 나온 것은 '기사'가 되지만, 사건 자체의 내막을 들여다보는 기사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즉, 정부, 경찰, 검찰, 법원 등에 의한 권위가 씌워진 '사실'은 '사실'로 보도할 수 있으나 개인의 '주장'은 '사실'이라는 증거 없이는, 즉, 권위에 의한 판단 없이는 기사화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기자들 내에서도 공통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뉴스가치 판단으로, 일본형 저널리즘, 즉, '발표저널리즘'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본에서는 미투 자체의 사건 내막은 기사화하기 힘들다. 언론에서 미투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사건을 해설하는 일은 더욱더 불가능에 가깝다. 2017년 12월 말 미국 뉴욕타임즈가 이토 시오리와 관련된 기사를 주요 기사로 올려 이토 시오리와 야마구치 히로유키 각각의 주장을 담으며 사건 내막을 해설하거나, 2018년 6월 영국 BBC가 이토 시오리를 중심인물로 다룬 1시간 가량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것은 일본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2018년 2월 <SBS 스페셜>에서 이토 시오리를 다룬 것을 생각하면, 일본 자국 내에서 미투의 상징적 존재에 대해 그 사건 내막을 들여다보는 탐사보도형 보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특기할만하다. 이러한 일본 저널리즘의 특성은 따라서 미투를 개인 간의 '사실' 관계를 다루는 문제로 '개인화'(individualization)하게 되며,

1) 상세하게는 이미숙(2019b) 참조. NHK 여성 기자 및 아사히신문 여성 기자와의 인터뷰.

주요 기사로 다루기보다 짧은 사건 기사로 다루게 된다. 2018년 재무성 사무차관에 의한 여성기자 성희롱 사건을 다룬 일본의 신문 기사를 분석한 카시아넨코(2019)는, 신문에서는 성희롱 사건을 ‘개인의 일탈’의 결과로서 다룬 기사가 가장 많았으며 공적 영역이라기보다 사적 영역에 속한 것으로 해석의 틀을 제한한다고 분석한다. 최근 일본 신문에서는 ‘성폭력’을 키워드로 한 기사나 ‘젠더’를 키워드로 한 기사는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개인화’의 수준에 머무른다면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사회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미투 사건이 2019년 말 그리고 2021년 4월에 있었다. 2019년 11월 군마현 쿠사츠초의 유일한 여성의원인 아라이 쇼코가 2015년 쿠사츠초장 쿠로이와 노부타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이 전자출판되었다. 이에 쿠사츠초장을 포함한 남성의원들은 바로 아라이 쇼코를 지역 의회에서 제명했다. 일부 주요 신문의 지역판에서는 뉴스가 되었으나 주요 신문들의 반응은 잠잠한 편이었다. 2020년 8월 군마현에서는 이와 같은 제명을 문제삼고 아라이의 복직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여 쿠로이와 쿠사츠초장 및 남성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아라이 쇼코의 처분을 결정짓는 리콜(주민소환)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허위정보로 지역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 등으로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2020년 12월 말 압도적인 표차로 아라이의 제명이 공식 결정됐다.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일자, 쿠로이와 초장은 도쿄의 외국인특파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콜문제는 정당하다고 주장, 이에 반발하여 아라이도 외국인특파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콜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2019년 말부터 2020년까지 도쿄도내 주요신문은 아사히신문을 제외하고는 어느 한 언론도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 다만 군마현 지역판에서만 ‘사실’ 관계를 다투는 단신 기사로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사회면에서 총 10건 정도 해당 사건을 기사화하였으나, 이 가운데에는 ‘시끄럽다, 창피하다’라는 제목으로 아라이 쇼코 관련 이슈를 지역의 수치 또는 지역 관광 경제를 망치는 부끄러운 일로만 언급하는 쿠사츠초 시민들의 인터뷰가 실려있다(아사히신문, 2020년 12월 8일, ‘시끄럽다, 창피하다 군마, 쿠사츠초의 리콜성립’).

이외에도 2021년 4월 일본의 방송인이자 모델인 마리에가 라이브스트리밍 방송형태로 지인과 대화하면서, 15년 전 미성년시절 당시 일본 방송계의 영향력 있는 거물 시마다 쉰스케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남성 개그맨들과의 술자리에서 시마다와의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당시 그러한 제안과 부추김을 거절했다는 마리에에는 이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 분노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몸은 무엇보다 소중한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달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마리에의 폭로는 그러나 주요 언론에서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일부 인터넷 언론만이 ‘연예’ 섹션에서 다뤘으나 이 또한 “사실은 모르지만”이라는 말과 함께, 연예계의 ‘마쿠라영업(성관계를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의미)’에 주목하는 2차가해적인 기사들로 채워졌다(아레라닷컴, 2021년 5월

2일, ‘마리에의 "마쿠라영업"이 큰 문제가 안되는 이유’).

일본 주요언론에서 성폭력 및 젠더와 관련된 기사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위와 같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반박하거나 ‘권위’에 의한 판단이 없는 경우는 ‘뉴스’ 자체가 되지 않는다. 즉, 사건 자체에 대한 ‘갈등’적인 내용은 배제한 채, 성폭력 피해를 ‘개인화’한 방식으로 생산·소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물어야 할 때다.

03

일본의 '젠더평등'을 위한 과제 – 구조화된 젠더격차의 시정

미투 언론 담론이 '개인화'하고 있는 한편, '젠더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적인 경제 잡지에서도 '젠더' 특집을 싣는 등, 주요 언론에서도 젠더를 키워드로 한 기사들이 증가했다(이미숙 2021). 또한 2021년 10월 말의 중의원선거에서는, 부부가 각자 다른 성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부부별성(夫婦別姓)' 정책 등, 어느 때보다 젠더 관련 정책의제가 이슈가 되었던 선거였다. 이에 2021년을 보여주는 10개의 유행어 중 하나로 '젠더평등'이 선정되기도 했다(2021 유캔 신어 및 유행어대상).

그러나 '젠더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실질적인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는 여전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의원선거는 2018년 5월 각 정당에게 선거에서 후보자를 남녀동수로 선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한 '정치분야의 남녀공동참획추진법'이 시행된 후의 첫 선거였다. '노력할 의무'에 그치기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시행 초기부터 의문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2021년 중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여성은 전체의 17.7%에 그쳤고, 당선자 비율에서는 오히려 지난 중의원선거의 10.1%에서 감소한 9.7%였다. 물론 1990년의 2.3%와 비교하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증가추세는 세계 여러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서도 더딘 편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과제로 삼고 있다(요미우리신문, 2021년 10월 30일, '중의원 2021 후보자, 아직 먼 남녀균등').

일본 내각부의 남녀공동참획국은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젠더격차지수를 인용해 젠더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남녀공동참획국(2021)에 따르면, 일본은 156개국 가운데 120위를 기록해 "선진국 가운데는 최저수준으로, 아시아권의 한국, 중국, 아세안의 여러 나라들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일본은 특히, 경제 및 정치분야에서의 순위가 떨어졌"으며, 정치 분야의 순위가 156개국 가운데 147위(작년 144위)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 "이는 각국이 젠더평등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일본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말해준다"고 분석했다. 즉, 다른 나라에서의 젠더격차 해소 노력에 비해 일본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거나 늦다는 것이다.

이러한 젠더격차는 언론업계에서도 나타난다. 도쿄지역의 6개 민영방송사에서는 여성 사원이 15.8%(니혼TV)에서 25.7%(후지TV)로 약 20% 정도가 여성 사원이지만,

보도국, 제작국(드라마 및 예능), 정보제작국(정보프로그램 제작)의 임원 및 국장에는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다(민방노연여성협의회, 2021). 신문에서도 여성 기자는 전체에서 22.42%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관리직은 7.71%, 여성 임원은 3.13%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젠더격차가 크다(마스코미문화정보노조회의, 2020). 이러한 언론업계의 구조적인 젠더격차는 언론에 등장하는 출연자 및 정보원(소스)들의 젠더격차를 구성하는 한 요인이 된다. NHK방송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NHK를 포함한 3사의 TV뉴스 프로그램(2021년 6월의 어느 하루의 방송)에서 출연자의 남녀비율은 7대3으로 남성은 40~64세, 여성은 19~39세가 가장 많았다(오오타케 외, 2021). 정치, 외교, 경제,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는 8대 2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기업임원, 관리직, 사업주’나 ‘학식자, 연구자’, ‘의사’ 직업군에서는 출연자 전원이 ‘남성’이었다. 또한 남성이 ‘능동적인 당사자’ 즉, 뉴스 스토리의 주어로 등장하는 것이 여성보다 4배 더 많았다(오오타케 외 2021: 76). 언론 기자들의 젠더격차는 사회의 구조적 젠더격차의 반영이면서 동시에, 이들 기자가 가지는 사회적 관계망(정보원 및 취재원) 및 사안을 바라보고 기술하는 시점의 젠더격차를 언론에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민사회의 공론장을 매개하는 언론에서의 젠더격차는 해당 사회의 젠더담론을 형성하는 근간이 될 수 있다. 실질적·구조적인 성평등을 향한 젠더담론을 형성하는 것은 ‘다양성·다원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핵심과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젠더격차와 백래쉬(‘목소리를 낸’ 여성을 공격하고 침묵하게 하는 발화적 행위 및 행동)는 한국 사회도 공유하고 있는 문제다.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사회에서 여성과 성소수자의 인권 및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과제들을 함께 배우고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카시아넨코 카테리나(Kasianenko, Kateryna). 2019. 'When it is Us Too? How Russian and Japanese media framed sexual harassment towards their journalists', Interactions: Studies in Communication & Culture, 10:3, pp. 201-221.
- 이미숙(Lee, Misook). 2019a. "#MeToo and broadcast journalism in South Korea: The gatekeeping process of #MeToo," Interactions: Studies in Communication & Culture. Vol.10(3): 223-240.

일본어문헌

- 남녀공동참획국. 2021. '공동참획' (5월호) https://www.gender.go.jp/public/kyodosankaku/2021/202105/202105_05.html
- 민방노연여성협의회. 2021. '전국/재도쿄/재오사카 민방TV국의 여성비율조사 결과발표'(5월 24일).
- 마스코미문화정보노조회의(MIC). 2020. '미디어의 여성관리직 비율조사 결과에 대해서'(3월 6일).
- 이미숙(李美淑). 2019b. "껍질"을 부수려는 한국의 여성들 - 지워지는 "목소리"에 항거하여, 하야시 카오리 편 『다리를 치워주지 않겠어요 - 미디어는 여성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가』 아키쇼보, 236-261쪽. (「 「殻」を破ろうとする韓国の女性たち—消される「声」に抗して」 『足をどかしてくれませんか—メディアは女たちの声を届けているのか』)
- 이미숙(李美淑). 2021. '미디어업계의 구조적 성차별의 해소는? - "젠더"가 미디어에 빈번하게 등장' 『주간금요일』(7월 9일), 49쪽.
- 오오타케 쇼코 외. 2021. 'TV출연자의 젠더 밸런스 ~ 트라이얼 조사로부터~' 『방송연구와 조사』(10월), 74-77쪽.

일본사회의 ‘미투(#MeToo)’와 민주주의 : 구조화된 폭력에 눈감은 언론의 ‘젠더평등’ 담론

Democracy Academic Fellows: Report on Democracy Overseas

발행일 2022년 1월 28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